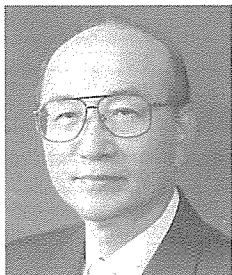


73년 창립 ... 매년 논문 1천여편 발표

# 한국정보과학회

1973년 설립된 한국정보과학회는 5천8백여명의 회원과 2백9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봄과 가을에 학술논문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는 55개의 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1천7백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 학회는 전산교육연구회 등 16개의 분과연구회로 나뉘어 심도있는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정보올림피아드를 통해 정보통신분야의 영재 청소년을 배출하고 있다.



李京煥

(한국정보과학회회장/중앙대 공대 교수)

한국정보과학회(韓國情報科學會)는 '정보과학에 관한 이론과 기술 발전 연구'를 목적으로, 1973년 3월 3일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임의 사설 학술단체이었으나, 1977년 10월 8일 과학기술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고, 1996년 10월 11일 정부기관의 업무 조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로 주무관청을 변경·등록하였다.

## 영·호남 등 3개지부 설치

창립 연도에 4백80명의 회원이 1998년 말의 집계로 회원 5천8백14

명 및 2백9개 기관이 되었으며, 98년 한해동안 55회의 학술행사 개최, 76회의 학술자료 발간, 1천7백56편의 논문발표를 한 거대 학회로 성장하였다. 이는, 국가 사회의 요구에 의한 결과로, 곧 정보과학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정보과학회의 의무가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과학회는 회장단·이사회·상임위원회·전문 분과연구회·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부회장은 학계의 황규영(KAIST)·장옥배(전북대)·안순신(고려대) 교수와 연구소의 오길록소장(ETRI), 그리고 업계의 김형회전무(한국IBM)가 맡고 있다. 이사회에는 논문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최양희교수,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KAIST 이광형교수와 양승민총무이사(한양대)를 포함하여 산업계 및 연구소·대학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0인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는 기획법제위원회·분과발전위원회·논문지편집위원회·학회지편집위원회·포상위원회·재무위원회·산학연합동위원회·정보처리표준위원회·전산교육위원회 등이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호남제주지부·영남지부·충청지부의 3개 지부가 있다. 학회 산하 16개 분과연구회는 전문분야별로 심도있는 학술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연구회의 구분은 곧 학회의 학문 영역을 의미한다. 연구회의 명칭 및 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16개 분과연구회 중심 활동

- (1) 전산교육연구회(백두권 고려대 교수)
- (2) 데이터베이스연구회(엄기현 동국대 교수)
- (3) 전문대학전산교육연구회(오세영 재능대 교수)
- (4) 인공지능연구회(오경환 서강대 교수)
- (5)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최광무 KAIST 교수)
- (6) 정보통신연구회(김치하 포항공대 교수)
- (7) 컴퓨터시스템연구회(맹승렬 KAIST 교수)
- (8)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이단형 LE-EDS 전무)
- (9) 병렬처리시스템연구회(박명순 고려대 교수)
- (10) 컴퓨터이론연구회(이상호 이화여대 교수)
- (11) 한국어정보처리연구회(박동인 ETRI 부장)
- (12) 뉴로컴퓨팅연구회(이성환 고려대 교수)

대 교수)

- (13)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연구회(서정연 서강대 교수)
- (14) IC카드연구회(김종상 서울대 교수)
- (15) 컴퓨터비전및패턴인식연구회(권영빈 중앙대 교수)
- (16)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김하진 아주대 교수)

한국정보과학회가 주최하는 연례 학술행사로써는 매년 봄·가을에 개최되는 학술논문 발표회와 KISS-KOCSEA 공동 워크숍, 정보산업리뷰 심포지엄, 정보과학논문경진대회 등이 있다. 학술논문 발표회에서는 매년, 최신 연구논문이 1천편 이상씩 발표되어 명실공히 정보학계의 최대 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ISS-KOCSEA 공동 워크숍은 한국정보과학회(KISS)와 재미한인정보과학기술자협회(KOCSEA)가 공동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으로 정보 선진국의 연구 결과 및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아주 소중한 창구이다. 금년으로, 17회째를 맞는 정보산업리뷰 심포지엄은 매년 말에 정보산업계의 현안을 추출하여,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정보산업계에 기여코자 기획된 행사이다. 그리고, 정보과학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학원 재학생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우수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 정보통신영재 발굴에 최선

이외에도, 1992년부터 UNESCO가 주관하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에 국내 청소년 대표를 선발,



▲ 제25회 춘계학술논문발표회(1998. 4. 25) : 포스터 발표

교육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정보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정보문화 정착과 교육 및 산업화 과정을 전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를 통하여 정보통신분야 영재 청소년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정보처리단체연합회(IFIP)의 정회원,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 컴퓨터학회(IEEE/CS) 및 미국컴퓨터학회(ACM)와 협력관계 유지, 일본정보처리학회(IPSJ)와 간행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 상호 사용협약 체결 등으로 정보과학의 국제조류 파악 및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정보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정기간행물로서 논문지 5종과 학회지가 있다. 월간 및 격월간으로 간행되는 '정보과학회 논문지(A)·(B)·(C)'는 엄정한 심사를 거친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회 본연의 임무인 학술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월간 「정보과학회지」는 매호 시

의적절한 특집논고를 전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획·게재하고 있으며, 영문지인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Science」는 관련 9개 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정보과학회는,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가면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의 도구가 되고 생활도구로 활용됨으로써 이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컴퓨터에 관한 전문가, 영역 전문가, 그리고 일반 사용자를 구분하여 전문화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용지침을 제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올바른 정보통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으며, 컴퓨터가 인간 복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①7